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중앙은행,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경고
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남유럽발 재정적자 위기가 유로지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.
 - ECB는 남유럽의 재정적자 위기 해소를 위해 350억유로(51.9조원) 규모의 부실국채 매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조짐이 있다고 언급
 - 더욱이 독일·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부실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한시적 운영뿐만 아니라 동 프로그램의 조기 종료를 요구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
 - ECB는 '금융안정성보고서'에서 금융위기(2007-2010) 동안 유로지역 은행의 자산상각의 규모는 5,150억유로(763.3조원)이며 이 기간 중 대출손실이 증가하였다고 발표
 - 특히 최근 들어 재정적자 위기로 유로지역 은행권의 대출 손실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금년 중 은행들의 자산상각 규모는 900억유로(133.4조원)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대손충당금으로 1,050억유로(155.6조원)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
- 남유럽국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국채 금리 상승과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을 순차적으로 상승시키고, 부실채권의 가격 하락은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 악화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.
 - 2012년 말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채 상환 규모가 8000억유로(1,185.8조원)로 파악됨으로써 유로지역 은행권의 자금 조달 경쟁 가속과 비용증가가 예상됨.
 - 유로지역 은행들이 보유한 그리스, 스페인 등의 국공채와 회사채는 2조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며, 특히 스페인 등의 부실채권은 대부분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.
 - ECB총재는 이들 부실채권의 가격 하락은 은행 자산의 평가손실을 의미하며, 이로 인해 은행 대출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함.
 - ECB의 저금리 대출 지원에도 불구하고 4월 유로지역 은행의 민간부문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0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(ECB, 5/31. Financial Times, 5/31)